

농업환경 변화속 신뢰의 바탕쌓자

분과위원회 호응 커... 운영방법 개선 합의

「이미지」 제고에 공동대처

3국 회장 인사말

한국·일본·대만의 농약산업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한 제 11회 한·일·대 3국 농약공업협회 회의가 지난 10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廉泰根회장을 비롯한 40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일본은 小平祐회장의 19명의 대표, 그리고 대만은 陳銀灶이사장의 16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廉泰根회장(한국농약공업협회)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환기적 농업환경 속에서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직면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추세와 식품소비의 고급화 등으로 농업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며 농약산업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廉회장은 또 『인류가 식량문제를 농업에 의존하는 한 농약은 농산물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에 필요불가결한 농업자재임에도 농약의 유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이 마치 유해농산물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이 생활화되고 사회의 구조가 변화한 오늘날 진실이 폭넓게 수용되도록



제11회 韓日臺 3국 농약공업협회 회의가 10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함으로써 신뢰의 바탕을 쌓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廉회장은 끝으로 오늘 회의가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안전사용대책을 위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 보다 나은 전진을 위한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小平祐회장(일본농약공업협회)은 인사말에서 3국의 농업을 둘러싼 정세는 매우 어렵다고 전제하고 『긴박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을 감안할 때 자국의 국토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꾀하고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통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경영규모의 확대, 영농후계자의 육성 등 농업경영 기반의 강화 및 개선

등 21세기를 향한 신정책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小平회장은 『세계적으로는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적·경제적 수단이 충분치 않고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부족에 처해있는 현실 속에서 식품중의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농약공업을 둘러싼 환경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小平회장은 또 『3국의 농약공업협회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선진적 입장을 자각하고 자국에서의 농업생산의 안정과 향상, 건강보호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陳銀灶이사장(대만농약공업동업공회)은 『3국자매회의가 결성된지 11년이 지나는 동안 정보교환, 화학물질특허에 대한 지적소유



廉泰根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 보호, 농약의 안전성 및 중요성에 대한 홍보, 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농약공업의 이미지를 상당히 개선시켰다』고 평가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생활의 질과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농약공업은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陳 이사장은 또 『농약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농약공장을 견학시키고 비디오 제작 배포와 각종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농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의견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국 농업정세 보고

3국대표단 소개에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3국은 농업정세 보고를 통해 농작물 작황, 농약 생산·출하 동향, 안전사용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한국은 李碩柱 전무이사가 보고를 하였으며, 일본은 佐佐木 亨 전무이사, 대만은 簡品淑 총간사가 설명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 : 수도용 '92 동기 11% 감소

1980년 이후 13년 만에 찾아온 이상 저온현상으로 농작물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도열병도 평년대비 1.3배가 증가했으며 흑명나방은 평년보다 2배나 증가했다.

사과·복숭아·고추·참깨 등 주요 작물도 생육이 지연되고 탄저병·흑성병 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1993년도 상반기 출하량은 1992년 동기 대비 3.2%가 감소하였으며 출하량의 약제별 구성비를 보면 수도용이 29%, 원예용이 61%, 생장조절제 및 기타가 10%를 차지하였는데 수도용은 1992년보다 11%가 감소한 반면 원예용은 11%

가 증가하였다.

1992년도 농약수출은 3,800만 달러로 1991년 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일본(13%), 대만(14%), 미국(8%) 등 20여개국에 수출하였다.

농약의 환경보호기준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잔류·토양 잔류 외에 수중 잔류 시험을 추가 고시하였고 농약에 의한 오염방지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수질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지도기준)치를 설정했다. 또 모든 등록원제에 대해 이화학적 조성자료, 분석용 표준품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원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일본 : 쌀 10a당 397kg 예상

1993년 9월 15일 현재 벼작황은 이상저온으로 1966년 이래 처음으로 400kg을 밑도는 10a당 397kg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쌀 수급에 신속히 대처하여 가공용 쌀의 긴급 수입, 내년도 경작면적 완화 등 종합 대책을 세웠다.

감귤은 전년보다 3% 감소한 162만 M/T, 사과는 1% 감소한 103만 M/T으로 전망된다.

벼농사는 도열병이 대발생하여 100건이 넘는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흑명나방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외 감귤 흑점병, 사과 흑성병, 야채의 역병이 많이 발생하였다.

과거 5개년간 출하수량은 매년 수%정도 감소되어 왔으나 올해는



대만협회의 簡品淑총간사가 농업정세를 보고하고 있다(왼쪽에서 세번째)

도열병약제의 출하가 늘어 전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이며 출하금액도 거의 같은 액수이다.

식품의 잔류와 관련하여 후생성은 1968년 이후 1978년까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규격(잔류농약기준)을 26농약, 53농작물에 대하여 설정하였다.

그 이후는 새로이 잔류농약기준 설정이 없었으나 그 수가 적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증대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일본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 일본과는 사용방법이 다른 수확후(포스트하베스트)사용된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어 큰폭의 기준추가와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1992년 10월 27일에 34농약, 1993년 3월 4일에 19농약이 추가 설정되어 합계 74농약, 129농산물

이 되어있다(법령의 시행은 각 1993년 5월 1일, 1993년 9월 1일).

현재 계속해서 기준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멀지않아 합계 100 농약을 넘는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된 농약중 현재 일본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하여 농약의 안전과 적정사용에 관한 지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약취체법에 의거 농약의 사용시기 및 방법등에 의거 농약의 사용시기 및 방법등에 대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개정하였다.

수도물의 수질 및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후생성은 산업활동의 고도화나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부영양화등 수도수원의 수질 악화가 진행되고 또 각종 화학물질의 이용이 늘

어남에 따라 이들 물질이 미량이지만 하지만 하천 등에서 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하고 맛있는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에 의거한 수질기준을 1992년 2월 21일(1993년 12월 1일 시행) 거의 30년만에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의 기본 기준은 WHO의 음료수 기준을 참고로 건강에 대한 항목에서는 종래의 급성독성을 생애에 걸쳐 계속 섭취 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을 바탕으로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환경청은 수도물의 수질기준과 연동하여 공해대책 기본법에 의거 1993년 3월 8일 환경기준을 개정했다.

한편 농약취체법에 근거한 등록보류기준에 있어서는 종전 논의 물 속에서의 당해농약의 농도가 환경기준의 10배를 넘고 그 상태가 7일이상 계속될 경우는 등록보류의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3년 3월 8일 "논의 물속의 150일간의 당해농약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의 10배를 초과할 경우"로 개정되었다.

최근 농약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속에서 농약제조업자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의 적정화,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약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정하고도 투명한 유통과 거래관행의 근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농약제조업 공정판매 활동지침」(1991. 9)을 정하고 다시 물류의 근대화, 합



3국 회장단과 기자단이 참석하여 농약산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기자회견

리화를 위하여 「물류 합리화 가이드 라인」을 추보(1992. 12)하였고 유통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 판매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농약 안전홍보대책을 위해 금년도는 새로이 안전홍보 특별위원회를 설치, 소비자 대책을 중심으로 안전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 대책, 보도대책, 지도자층대책, 업계대책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대만 : 폐용기 회수목표 60%선

1992년 대만의 농업생산액은 5,620,881千 NT\$로 그중 과일이 1,660,566千NT\$(2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쌀(24.8%), 채소(23.6%), 특용작물(11.9%), 보통작물(6.8%), 화훼(3.3%)순이다.

새로 추진중인 신정세대용 농업조

절방안으로는 ▲쌀의 자금자족을 견지하는 한편 독특한 양질의 쌀을 개발하여 식생활문화의 보급을 강화하고 ▲무역자유화와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는 과일생산은 고품질화를 우선으로 하며 ▲채소가 받는 타격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채소전문업 단지를 조성한다 등이다.

1992년 협회회원 농약공장의 농약제품 판매량은 36,273M/T(금액:155,236千NT\$)로 총시장점유율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제조제가 49.1%, 살충제 40.8%, 살균제 8.3%순이다.

3년째 실시되고 있는 농약폐용기 회수목표율은 60%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존하는 101개의 회수상인 및 화훼, 차나무단지에서 지정 회수통을 설치하는외에 올해에도 1,000개의 지정 회수통을 더 설치

할 계획이며 홍보비디오 테잎제작, TV·라디오를 이용한 홍보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농약의 안전성과 농업생산에 대한 농약의 공헌도를 이해시키고 나아가 농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약 이해를 위한 여행” 제도를 마련,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만은 농약의 독성구분을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가벼운 독성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맹독성 및 고독성농약은 67종이 있고 이들 제품들은 해골의 경고표시를 함은 물론 자극성·연소·폭발·산화하기 쉬운 특성및 부식특성이 있을 경우 라벨에 경고 표시및 문자를 기입해야 한다.

채소·과일의 농약잔류량 측정을 통제하기 위해 기존의 집하장, 도매시장, 農會및 지역농업개발장등 36개소의 생화학검사소및 14개소의 화학검사소를 통합하는 외에 농약연구소 농약실험실과 지방정부기관등이 분업협력방식으로 각 생산·판매 단계에서 농약잔류량을 감시 측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시켰다.

1993년 1월부터 6월까지 9,769건의 농약잔류량을 검사시험한 결과 몇 건만 불합격되었을 뿐 거의 100%의 합격율을 보이고 있다.

**제12회는 臺灣에서 개최
본회의 → 94.10.27
예비회의 → 94.4.7**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겸한 리셉션 파티

이날 회의에서는 '94년에 개최되는 제12회 회의를 대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예비회의는 '94년 4월 7일에, 본회의는 '94년 10월 27일로 결정했다.

기자회견

본회의가 끝난데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는 3국 농약공업협회 회장단과 3국의 기자 10명이 참석하여 3국의 농약산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廉泰根회장은 농약의 안전대책과 관련된 질문에서 『현재 업계는 처독성농약 개발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맹독성농약은 한 품목도 없고 고독성농약도 인축및 환경보호를 위해 행정적으로 출하제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농약을 안전하

고 걱정하게 사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사용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약이 독성물질이 아닌 식량을 해결해주는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廉회장은 또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계, 학계, 업계가 협력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小平祐회장은 농산물수입과 관련 새정부들어 120만톤의 쌀을 긴급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수입개방화와는 별개로 100년에 한번 있을 정도의 이상저온 때문에 결정된 긴급피난대책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일본의 식량자급율은 칼로리기준으로 50% 미만이기 때문에 식량확보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小平 회장은 또 식량은 공산품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식량자급을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만약 일본인이 굶고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식량을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창립 20주년 축하 리셉션 국내외 인사 200여명 성황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리셉션파티는 3국농약공업협회 대표단을 비롯하여 학계, 관계, 관련업계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리셉션에서 小平祐회장과 陳銀灶이사는 한국농약공업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3국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뜻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을 廉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한국농약공업협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아울러 3국가매회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전현직 회장과 일본·대만회장이 함께 축하케익을 자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廉泰根회장은 협회창립과 더불어 20여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협회를 발전시켜온 李碩柱전 무이사에게 공로패와 함께 금일봉을 수여했으며, 대외홍보와 20년사 편찬등에 공이큰 崔運鴻홍보부장에게도 표창장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농약정보